



소통하는 의정, 공감받는 의회

# 충북의정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2019. 7. Vol 259



충청북도의회

<http://council.chungbuk.kr>



## 손 길

그 사람  
꽃을 가꾼다  
무표정의 회색 공간을  
꽃밭으로 일군다

봉숭아 채송화 나팔꽃 별꽃 작고 고운 이름들이  
용기종기 다정스레 어깨 곁으며 눈 맞추는 작은 터  
오가는 시선들 어느새 머물러  
마음 속 꽃나무에도 하나 둘 붉은 잎 핀다

여린 생명 쓰다듬는 손길에 자라  
뿌리와 잎새의 순한 사랑이  
저 붉은 꽃잎 피우는 아름다운 섭리  
바라보는 마음도 스스로 둥글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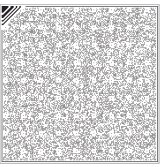
꽃을 가꾸는 사람  
그 사람의 손길



### 김 은 숙

- 시인·인문활동가
- 시 집 : 「미끄럼주의보」, 「아름다운 소멸」, 「손길」 등
- 산문집 : 「갈참나무 숲으로」, 「마음의 꽃밭」(공저) 등
- 「충북작가」 편집위원, 「내륙문학회」 부회장, 여성시동인회 「詩泉」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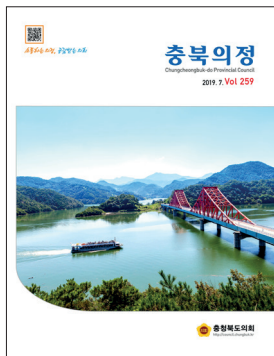


# 충북의정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2019. 7. Vol 259

## Contents



### 옥순대교

옥순대교가 있는 자리는 충주댐이 건립되기 전 나룻배를 이용해 강을 건너던 조용한 나루터(괴곡나루)였다. 주위의 기암절벽과 충주호가 옥순대교와 어우러져 절경을 연출하고 있다.

- 04 | 제373 회 정례회 주요내용
- 06 | 충청북도 지역인재 육성방안 마련 토론회
- 07 |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 08 |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 제정 토론회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 09 | 충북도·도교육청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 10 | 제11대의회 1년 주요 성과
- 12 | 일본 야마나시현·베트남 빈푹성 등과 국제교류
- 13 |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지원 특위 활동
- 14 | 상반기 전체의원 연찬회 개최  
전국 시·도의회의장단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등 촉구
- 15 | 각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활동상황
- 22 | 제373 회 정례회 주요 처리의안
- 24 | 대집행기관 질문
- 26 | 5분 자유발언
- 28 | 의정활동 이모저모
- 30 | 의정논단

- 발 행 일 : 2019년 7월
- 발 행 인 : 충청북도의회 의장 장선배
- 발 행 처 : 충청북도의회
- 주 소 : (우.2851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문화동)
- 전 화 : (043) 220-5123
- F A X : (043) 220-5119
- 홈페이지 : <http://council.chungbuk.kr>
- 구독신청 : 「충북의정」 구독을 희망하시는 도민께서는 상기의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의회는 6월 10일부터 6월 24일까지 15일간 제373회 정례회를 열어 '2018회계연도 결산' 및 '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 제373회 정례회

##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및 민생현안 27건 의결 2018회계연도 결산 및 도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 심사

충북도의회(의장 장선배)는 6월 10일부터 6월 24일까지 15일간 제373회 정례회를 열어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의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충북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또 「충청북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안」 등 10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충북도지사과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 3월 학교(가칭 동남2유치원)설립 계획안」 등 총 2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전체의원 연찬회, 정책 토론회, 위원회별 현지확인 등을 실시하며 도정 주요 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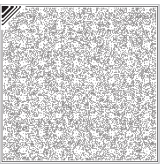
해결에 집중했다.

6월 10일 실시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7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의결하고 충북도교육감으로부터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들었다.

이어, 허창원 의원이 충북도를 대상으로 대집행기관 질문을 실시하여 △청남대 운영 및 활성화 △청남대 체류형 관광객 유치에 위한 방안을 주제로 관련 사항들을 조목조목 물었다.

또 이상정·전원표·임영은·이상욱 의원이 각각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해 △남북교류협력사업 적극적으로





## 📖 제373회 정례회 주요처리의안

- 충청북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안
- 충청북도 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청북도 행정법규상담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청북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충청북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청북도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 충청북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안
-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준비하자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 소외지역을 배려하자 △충청북도지 발간을 위한 제언 △청주 에어로폴리스2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이주민 특별지원 등을 주제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는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6월 13일부터 17일까지 「충청북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이 제출한 「2018 회계연도 결산」 및 「충북도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안」 등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했다.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는 본회의에 앞서 제2차 위원회를 열어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와 관련해 △관광·항공분야 △광역교통망 △MRO산업 및 에어로폴리스 2지구 등에 대한 분야별 질의시간을 갖고, 청주국제공항 활성화가 곧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가 구축될 수 있도록 특위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지원 및 KTX오송역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도 이날 균형건설국과

간담회를 열어 예타면제 후 최근 안전과 기술적인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오송 연결선 사업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특위 차원에서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6월 24일 열린 2차 본회의에서는 미세먼지 관련 대책 추진상황을 상시 점검·지원하기 위한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충북도교육청의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또 「충청북도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안」 등 10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충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 등 9건, 충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등을 의결했다.

이어, 이수완 의원이 △혁신도시 시즌2와 (가칭)혁신도시 세무지서 신설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해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 지역인재 육성위해 충북도·도교육청 다양한 의견 제시

도의회 교육위, '충북도 지역인재 육성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5월 13일 충북도자연과학교육원에서 미래인재 육성 실천방안과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숙애)는 5월 13일 충북도자연과학교육원에서 장선배 의장과 박문희, 이상식 최경천, 이상욱 의원 등 도의원들과 충북도·도교육청 관계자, 시민사회단체, 학부모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 지역인재 육성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충북의 미래인재 육성'에 대한 지역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지역 균형발전과 정주여건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미래인재 육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실천방안과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숙애 교육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는 한창섭 충북도 행정부지사가 △충북도 미래인재 육성방향을, 홍민식 충북도교육청 부교육감이 △충북의 미래인재육성 모델 창출 방향 등을 주제로 발표하고 이어, 임성재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김경희 성신여대 교수, 박용만 충북여자고등학교장이 패널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토론회를 마친한 이숙애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지역인재 육성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갈등으로 비춰진데 반해, 이러한 논쟁들이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교육철학이나 방법론에 대한 공론화 계기가 되어 공감대가 형성된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에서 한창섭 부지사는 “명문고 육성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도와 시·군, 교육청의 협의로 명문고를 육성해야 한다”며 “충북도는 사립명문고를 유지하고 국가는 국립 한국교원대부설고를, 도교육청은 도내 고교를 명문고로 육성하는 등 기관별로 역할을 분담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민식 부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상은 급변

하는 산업 구조와 사회문화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창의적 인재, 자기주도적 인재, 협업이 가능한 인재”라며 “이런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의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도교육청은 학교교육 혁신을 위한 다양한 미래인재 육성 모델의 공통요소로 △학생 맞춤형 역량 중심 교육과정 실현 방안 모색 △미래형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미래학교의 학습공간 모델 구축 △미래인재를 키우기 위한 교원역량 강화정책 마련 △대학 및 연구기관, 기업, 지역사회 등과 연계 및 거버넌스 구축 등 4가지 추진방향을 밝혔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임성재 공동대표는 “공교육 정상화와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으로 교육정의부터 우선적으로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경희 교수는 명문고교는 교육선진국의 보편적 현상임을 예로 들며 평준화 해제 검토, 국제중 및 국제고·자사고 등 설립을 제시하고 자치단체에서 등록금 지원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제안했다.

박용만 교장은 “진로진학교사의 대입관련 연수 및 진로진학 상담실을 통한 입시 총괄과 학교장 책임경영제 도입과 다양한 교육과정 도입을 통한 체계적 교육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관련 법률 제정·중간지원조직 구축 등 의견 제시

### 행정문화위, '충북 지역공동체 활성화 모색 토론회' 개최

충북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충북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적 방안 모색 토론회'가 6월 26일 충북도의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전원표)와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역공동체위원회(위원장 박구원)가 공동 개최한 이번 토론회는 도의원과 공무원, 지역공동체 관계자, 마을 활동가 등 70여 명이 참여해 도내 지역공동체의 현황과 향후 추진방향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전원표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토론회는 류지봉 지역공동체위원회 총괄위원의 '제1주제 : 충북지역공동체 사업추진 현황과 과제'와 김현구 충북도 민관협력공동체과장의 '제2주제 : 충북지역공동체사업 정책현황 및 방향' 주제발표에 이어 송미애 충북도의회 의원, 박구원 지역공동체위원장, 원세용 청주대 교수, 임동현(사)징검다리 대표이사가 패널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들을 개진했다.

김현구 과장은 주제발표에서 "지역공동체는 공공성을 갖고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이나 복리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구성한 사회통합의 근간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충북도의 현황과 활성화를 위한 추진전략을 상세히 소개했다.

이어, 류지봉 총괄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그 간의 지역공동체위원회의 추진사업을 소개하고, 추진과제로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설치 △전담부서 설치 △네트워크 활성화 △마을공동체 활동가(코디네이터) 발굴 및 양성 △마을공동체 모델개발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송미애 의원은 "정부실패와 시장실패의 대안으로 부각되는 지역공동체 관련 법률의 조속한 제정과 민·관거버넌스로서의 지역공동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 구축 등을 제안했다.

박구원 위원장은 "유관 기관과 정보공유·협력이 부족해 사업효과를 극대화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역활동가와 모델사업의 집중 발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세용 교수는 "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이 토론되는 제



행정문화위원회는 6월 26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충북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적 방안 모색 토론회'를 실시했다.

도적 공론장이 제도적으로 보완되고 정책 반영률이 높아져야 한다"고 밝혔다.

임동현 대표이사는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경제의 구성요소로서 지역의 경제사회적 맥락이 지속가능성을 유지한다"고 강조하며 지역공동체에서의 사회적기업의 중요성을 상세히 전달했다.

방청에 참여한 김춘식 충청북도 새마을회사무처장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단위 새마을 운동 같은 사회적 자본을 활용한 사례를 적용하고, 공동체의 리더를 양성하는 비용을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이밖에도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전원표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 진일보한 성과가 있었다"며, "토론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종합하여 민·관이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정책복지위,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 제정 토론회

### 정신질환자 사회적응 촉진 및 권익보호 활동·단체 지원 신설



정책복지위원회는 5월 30일 충북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충청북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책복지위원회는 5월 30일 충북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전문가와 현장 활동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북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육미선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는 조례안

발표에 이어 주가원 충북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센터장, 박상규 꽃동네대학교 교수, 최영락 온유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안금숙 우리들정신건강센터 센터장, 이상민 청주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팀장, 김용호 충북도 보건정책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육미선 의원은 조례안 발표를 통해 "충북도민의 정신질환 예방·치료와 정신질환자 재활·복지·권리보장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도내 정신질환자와 가족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며 본 조례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도민 의무와 정신질환자 관련 기밀누설 금지조항을 추가 할 것과 도의 정신건강 문제 조기발견 체계 구축 등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도 연계대상으로 명시해 줄 것 등이 요청됐다.

##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정부차원 대책마련 촉구

### 충북도 수립 9개분야 81개 미세먼지 저감대책 등 점검



충북도의회는 6월 24일 제373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적극적인 미세먼지 저감활동 지원에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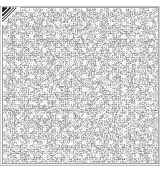
이번 특별위원회 구성은 전국 최고 수준의 미세먼지 농도가 도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 따라 충북도의 심각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미세먼지 대책 추진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저감 정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위 위원장은 9명으로 위원장에는 이의영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최경천 의원이 각각 선출되었으며 위원으로는 김기창·박형용·서동학·송미애·오영탁·이상정·임영은 의원이 각각 선출되었다. 위원들은 2020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특위는 앞으로 국외유입 미세먼지의 저감을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 촉구와 자체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충북도에서 수립한 9개 분야 81개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대한 추진상황 등을 점검한다. 또, '대기관리 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추진을 점검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 충청북도·충청북도교육청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충북도 12건·도교육청 10건 지적 및 개선 요구 ... 우수사례도 선정



충북도의회는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16일까지 20일간 충청도와 충청북도교육청의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채권·채무, 재산·기금, 금고 등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했다.

이번 결산검사는 이의영 도의원을 대표의원으로 박형용·임영은 도의원, 김경중·여용준 공인회계사, 이진민 세무사, 예산 및 회계분야에 근무했던 강성태·신재식·전찬우 전직 공무원 등 9명의 결산검사위원들로 구성됐다.

결산검사위원들은 간담회와 현지 확인 등을 통해 심도 있는 검사를 실시하여 총 22건의 지적 및 개선사항과 6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또, 이번 결산검사는 관계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세부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결산지침의 준수여부를 검사하고,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효율적 운영에 대한 재무관련 회계검사를 포함했다.

특히,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의 적정성여부에 대해 회계별 세입·세출결산서, 장부 및 증거서류, 금고의 출납 등 3자가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일부 세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서류 조사와 현장방문 조사를 병행해 실시했다.

결산위원들이 이같이 세밀하게 검사한 결과 충북도 소관으로는 △산하기관 예산집행방법 개선 및 변경계약 부적정 △청납대(영준제 등) 축제예산 미흡 현실화 강구 △보조금반납금 및 세출이월예산 최소화 방안 강구 △장기투자증권 평가의 적정성 △퇴직급여충당부채 산정의 적정성 △성과지표, 목표 설정 및 운영방법 개선 △재무제표 결산서~채권, 채무 관리보고서 작성 철저 △

고문회계사 및 세무사의 상시 자문 활용 △지방세입 과오납 환급금 발생 최소화 운영 △1인 수의계약 집행 개선 권고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절차 개선 △소방 신규임용자 개인안전장비 구입방법 개선 등 12건의 지적·개선사항이 도출됐다.

또 △2018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 성공개최 △전국 최초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추진 △생산직 일손봉사 추진 등 3건의 우수사례로 뽑았다.

충북도교육청 소관으로는 △에듀파인 재무결산 시스템 기능 개선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 및 예치율 개선 △주석공시의 보완 △퇴직수당부담금 예산전용 개선 △국립학교 예산지원방법 개선 △세출예산 이월 최소화 방안 강구 운영 △예산이체 처리 시 예산현액 관리 개선 △성과보고서의 성과지표 운영 개선 △성인지 예·결산 성과목표 및 지표 관리 철저 △불용액 과다 발생으로 효율적 예산 편성·운영 개선 등 10건의 지적·개선사항을 도출했다.

이와 함께 △'충북행복교육지구' 운영을 통한 행복교육 실현 △2018년도 물품통합계약을 통한 교육재정 절감 △예금이자 수익을 통한 세입 증대 등 3건을 우수사례로 뽑았다.

이의영 대표위원은 "이번 결산검사 결과 충청도와 도교육청의 전반적인 예산운영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며 "개선·권고사항을 토대로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검사위원의 의견서는 도의회 6월 정례회에서 최종 의결하여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에 이송됐다.

## “정책·혁신·능동 의정 펼쳐 도민 공감 이끌어냈다”

충북도의회 1년 집행부 견제 - 지역현안 해결 - 갈등중재 역할 합격점

개원 1년을 맞는 충청북도의회가 정책·혁신·능동의회를 향한 보폭을 넓히고 있다.

지난해 7월 ‘소통하는 의정, 공감받는 의회’를 기치로 출범한 제11대 충청북도의회는 지난 1년 간 ▲입법활동 강화를 통한 정책의회 ▲변화와 개혁을 통한 혁신의회 ▲지역현안의 선제적 해결을 통한 능동의회를 의정활동 키워드로 삼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도의회는 또 민생관련 입법활동 강화에 역점을 둔 정책의회를 추구했고 도민의 눈높이에 걸 맞는 혁신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면서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선제적으로 구성하고 집행기관과 함께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등 능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01 입법활동 강화를 통한 정책의회 구현

도의회는 지난 1년 간 9회에 걸쳐 138일의 회기를 운영하며 20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 중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건수는 84건으로 전체 조례 건수의 67%를 차지한다. 이는 지난 제10대 의회 전반기보다 의원 발의 제·개정건수가 대폭 증가한 수치다.  
\* 207건(조례 122, 규칙 4, 예·결산 14, 동의·승인 44, 건의·결의 10, 기타 13)

작년 말 11대 의회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에서는 487건을 지적해 집행기관에 건의·개선·시정을 요구했다.

이 같은 지적 건수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보다 30% 정도 늘어난 것으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를 강화한 통계자료로 분석된다. 예산안 심사에서는 방만한 예산운영 방지와 형평배분을 위해 꼼꼼하게 점검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추구했다.

### 02 변화와 개혁을 통한 혁신의회 구현

도의회는 제11대 출범 후 우선과제로 해외연수 개선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하고 규칙에 반영해 제도화했다.

이후 실시한 교육위 국외연수는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호평을 받았다.

의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거쳐 도의회 조직개편방안을 마련했으며 의정 수행능력을 높이고 집행부 견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의원 스스로의 역량강화에도 힘썼다.

두 차례 실시한 전체의원 연찬회에는 역대 의회 최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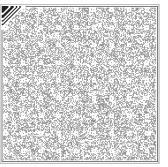
로 의원 전원이 참여했고 지역 현안해결을 위해 여·야 없이 한 목소리를 내는 등 모범적인 의회상을 보여줬다.

도의회는 자치분권 확대와 인사권 독립, 정책보좌관제 도입 등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 활동도 적극 전개했다.

충북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공론화 하며 충북도에 요청했다.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을 위해 자체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전국 광역시·도의회 공동으로 지방분권 강화를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 03 지역현안의 선제적 해결을 통한 능동(역동)의회 구현

청주 국제공항 활성화와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지원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이들이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선제적 의정을 펼쳤다.

또 지난 6월 임시회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도 구성해 활동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 예타면제 건의안’, ‘청주국제공항 거점항공사 면허발급촉구 건의안’ 등 9건의 건의안을 채택해 국회와 정부 부처에 건의하는 등 지역현안 해결에도 앞장섰다.

초·중·고 무상급식 예산분담과 명문고 설립과 관련해서는 양 기관장 면담은 물론 교육부를 방문해 지역의 의견을 전달했다.

또한 지역 토론회를 개최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지역현안을 둘러싼 기관 간 갈등 해결에도 적극 나서 조정자 역할을 해냈다.

조례를 제정하기에 앞서서는 상임위별로 현장을 방문하고 집행기관·도민·사회단체 등과 간담회와 토론회를 열어 민의를 반영하는 신뢰받는 의정을 펼쳤다.

\* 상임위별 현장 방문 80회, 각 기관간 간담회 57회, 토론회 18회

대외적으로는 중국 헤이룽장성과 인민대표회의와 광시 좡족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베트남 빈푹성 인민회의, 일본 야마나시현 의회 등 3개국 지방의회와 국제교류도 활발히 펼쳤다.

장선배 의장은 “제11대 전반기 1년은 변화를 바라는 도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신뢰 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혁신을 거듭한 한해였다”며 “앞으로도 충북도의회가 도민의 염원을 담은 통합의 공간이자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 하겠다”고 밝혔다.

#### 10대/11대 의회 의정활동 주요성과

| 내 용                   | 10대 및 11대 실적                                                                                           |                                                                                                        |                                                                                                                                                                                                                  |
|-----------------------|--------------------------------------------------------------------------------------------------------|--------------------------------------------------------------------------------------------------------|------------------------------------------------------------------------------------------------------------------------------------------------------------------------------------------------------------------|
|                       | 10대 전반기 1년                                                                                             | 11대 전반기 1년                                                                                             |                                                                                                                                                                                                                  |
| 회기운영                  | 9회 / 119일<br>• 정례회 : 2회/54일<br>• 임시회 : 7회/65일                                                          | 9회 / 138일<br>• 정례회 : 3회/74일<br>• 임시회 : 6회/64일                                                          | <b>도정 사업장 현지 확인</b><br>80회 (10대 의회 : 58회)<br><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운영위원회 1회</li> <li>정책복지위원회 11회</li> <li>행정문화위원회 21회</li> <li>산업경제위원회 12회</li> <li>건설환경소방위원회 25회</li> <li>교육위원회 10회</li> </ul> |
| 의안처리                  | 178건<br>• 조 례 : 111건<br>• 규 칙 : 3건<br>• 예 · 결 산 : 10건<br>• 동의·승인 : 30건<br>• 건의·결의 : 12건<br>• 기 타 : 12건 | 207건<br>• 조 례 : 122건<br>• 규 칙 : 4건<br>• 예 · 결 산 : 14건<br>• 동의·승인 : 44건<br>• 건의·결의 : 10건<br>• 기 타 : 13건 |                                                                                                                                                                                                                  |
| 의원발의                  | 50건                                                                                                    | 84건                                                                                                    | <b>간담회</b><br>57회 (10대 의회 : 42회)<br><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책복지위원회 16회</li> <li>행정문화위원회 3회</li> <li>산업경제위원회 17회</li> <li>건설환경소방위원회 10회</li> <li>교육위원회 11회</li> </ul>                             |
| 도정·교육시책 질문 (대집행기관 질문) | 8회 11명 49건                                                                                             | 6회 9명 38건                                                                                              |                                                                                                                                                                                                                  |
| 5분 자유발언               | 51회                                                                                                    | 60회                                                                                                    | <b>토론회·공청회 등</b><br>18회 (10대 의회 : 9회)<br><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총무담당관 1회</li> <li>운영위원회 1회</li> <li>정책복지위원회 6회</li> <li>산업경제위원회 3회</li> <li>건설환경소방위원회 1회</li> <li>교육위원회 6회</li> </ul>            |
| 서면질문 및 서류제출           | 136건                                                                                                   | 115건                                                                                                   |                                                                                                                                                                                                                  |
| 의회견학·방청현황             | (견학) 5회 150명<br>(방청) 63회 526명                                                                          | (견학) 17회 768명<br>(방청) 41회 485명                                                                         |                                                                                                                                                                                                                  |
| 청소년의회 교실 운영           | 6회 12개교 432명                                                                                           | 9회 18개교 598명                                                                                           |                                                                                                                                                                                                                  |
| 전체의원 연찬회 운영           | 2회                                                                                                     | 2회                                                                                                     |                                                                                                                                                                                                                  |

## 일본 야마나시현·베트남 빈푹성과 국제교류 활성화 추진

경제통상·문화·관광 등 양 지역 간 폭넓은 국제 우호교류 다져

### 일본 야마나시현과 관광활성·민간교류 등 모색



충북도의회는 6월 3일부터 6일까지 일본 야마나시현을 방문해 양 지역 간 교류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충북도의회는 일본 야마나시현의회 초청으로 황규철 부의장을 단장으로 연철흙·박형용·육미선·허창원·박우양·오영탁·서동학·박성원 의원 등 9명의 대표단을 구성해 6월 3일부터 4일간 야마나시현과 도쿄 등을 방문해 양 지역 간 교류확대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야마나시현의회 방문은 지난해 3월 야마나시현의회 대표단이 충북도의회를 방문해 양 의회 간 동반자 관계를 더욱 견고히 하자는데 따른 것이다.

도의회 대표단은 6월 4일 첫 공식 일정으로 야마나시현의회를 방문해 오시바 쿠니히코 의장과 일행들을 만나 간담회를 갖고 그동안 교류 성과들을 점검한 후 경제교류를 통한 실질적인 교류확대와 양 지역 단체 및 주민 상호방문을 통한 관광활성화 등 민간교류를 적극 제안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대표단은 또 이날 야마나시현립 리니어 견학센터, 후지산 세계유산센터를 시찰하고, 6월 5일에는 야마나시현에 위치한 의료기기 업체인 굿맨기업 등 산업시설들을 방문해 양 지자체간 교류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황규철 부의장은 “우리 도의회와 야마나시현의회가 상호 협력을 통한 양 지역 공동발전에 서로 의견을 모았다”며 “양 의회 간 상호방문이 실질적인 교류 확대에 이어지도록 의회차원의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베트남 빈푹성과 경제통상분야 등 협력 강화 약속



충북도의회는 6월 21일 내방한 베트남 빈푹성 인민회의 대표단과 경제통상 분야 등의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충북도의회는 대표적인 포스트 차이나(Post China) 국가이자 충북의 주요 수출국으로 급부상한 베트남 빈푹성과의 우호교류 협력 강화에 나섰다.

도의회는 6월 21일 충북도의회를 방문한 쩌반빙 빈푹성 인민회의의장 등 대표단과 도의회 회의실에서 간담

회를 갖고 양 지역 간 우호교류 협력과 한~베트남 간의 관계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쩌반빙 빈푹성 인민회의 의장은 “충북의 경제·사회발전에 놀랐다”며 “충북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와 양 지역 간 폭넓은 교류협력을 희망 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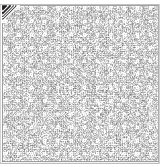
쩌반빙 의장은 또 “빈푹성도 충북 기업들에게 우대정책을 적극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장선배 의장은 이에 대해 “우리도와 빈푹성 모두 경제성장이 빠른 지역으로, 상호 교류 기반이 잘 마련돼 있다”며 “그동안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경제·문화·관광 등 각 분야의 교류협력을 더욱 확대·발전시키자”고 화답했다.

한편 빈푹성 인민회의의 대표단은 도내 대표적인 제약기업인 셀트리온과 도내 주요 관광명소를 시찰했다.

빈푹(Vinh Phuc)성은 지난 20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 14.8%를 기록하고 있다.





## 도의회 특위, 지역 핵심현안 해결·지원에 역량 집중

### 청주공항 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 교통망 등 분야별 방안 모색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는 6월 10일 위원회를 열고 집행부 관계자들과 관광·항공, 도로교통망, MRO산업 등에 대한 각 분야별로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충북도의회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와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 등 충북 핵심 현안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열고 사업 지원에 들어갔다.

도의회 청주공항 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식)는 6월 10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청주국제공항 거점 항공사 에어로-K의 항공운송 면허 취득 등을 계기로 세종시 관문공항과 중부권 거점 공항으로 도약하고 있는 청주

공항 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인 지원방안 모색에 나섰다.

이날 청주국제공항 지원 특별위원회는 집행부 관계자들과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와 관련해 △관광·항공분야 △광역교통망 △MRO산업 및 에어로폴리스 2지구 등 분야별로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토론에서 특위는 공항 인프라 확충, 항공노선 다양화, 공항 접근성 향상, 국외 관광객을 위한 관광인프라 구축 등 공항 활성화 방안을 협의하고 청주국제공항 활성화가 곧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가 구축될 수 있도록 특위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위는 “청주국제공항이 관문공항 역할에 그치지 말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되도록 각 분야별로 꼼꼼하게 대책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상식 특위 위원장은 “이번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공항발전을 위해 보다 계획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모색해 청주국제공항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한 축으로 성장하는데 특위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지원 특별위원회, 오송 연결선 진행 등 논의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지원 특별위원회는 6월 10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오송 연결선 사업 진행상황에 대해 균형건설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시간을 가졌다.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연철흠)도 6월 10일 간담회를 열고 예타면제 후 최근 안전과 기술적인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오송 연결선 사업 진

행상황에 대해 균형건설국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진행상황과 오송 연결선 사업 반영을 위한 대응 방안마련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오송연결선 사업은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근본 목적인 강호축(강원~충청~호남)을 구축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나, 최근 안전과 기술적인 문제로 국토부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KDI의 적정성 검토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연철흠 특위위원장은 “강호축 개발의 근간이 되는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의 성공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오송연결선 사업이 관철될 수 있도록 특위차원에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의정역량 강화 위한 상반기 전체의원 연찬회 개최

### 특위구성·지방자치법 개정 대응방안 등 주요 현안 토론



도의회는 6월 11일부터 12일까지 괴산군 불성산 산림휴양단지에서 전체의원 연찬회를 갖고 특위구성, 의회사무처 조직개편안 등 현안을 논의했다.

충북도의회는 6월 11부터 12일까지 이틀간 괴산군 성불산 산림휴양단지에서 32명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전체의원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찬회는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의정역량을 높이고, 주요 현안을 심도있게 토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의원들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대응 방안 등에 대해 이동영 전국시·도의회회장협의회 수석전문위원의 특강을 청취했다.

이어 장선배 의장의 주재로 의회사무처 조직개편 방안과 최근 전국적인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벌였다.

장선배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자치법 개정 주요 내용과 대응방안을 공유하고, 전체 의원들의 고견을 종합해 의정활동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의회는 최근 경제여건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고려하며 도내 동남부에 위치한 괴산군 지역을 연찬회 장소로 선정했다.

## 전국 시·도의회회장단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강력 촉구

### 이·통장 처우개선 및 지속가능 발전 공동선언문 건의문 등 채택

충북도의회 장선배 의장은 지난 5월과 6월 전국시·도의회회장협의회에 참석해 시·도 의장들과 함께 ‘이장·통장 처우개선을 위한 건의문’과 ‘주민 청원권 신장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문’ 등을 채택하고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시·도 의장단은 ‘이장·통장 처우개선을 위한 건의문’에서 지난 15년 동안 동결된 이·통장 수당을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할 것과 회수수당을 3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촉구하고, 이·통장의 지위에 관한 법령 개정도 요구했다.

또한, ‘주민 청원권 신장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문’에서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의원의 소개가 있어야 청원이 가능하던 것을 일정 수 이상 주민 동의만으로 가능하게 함으로써 청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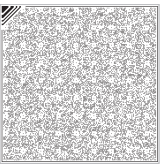
또, 청원서에 청원자의 주소·성명을 날인해 청원에



장선배 의장은 지난 5월과 6월 전국 시·도의회회장 협의회에 참석해 시·도 의장들과 함께 각 지역 주요 현안사항들을 조속히 해결해달라고 요구했다.

대한 주민의 접근성을 제한 한다는 여론을 감안해 지방의회를 방문하지 않고 전자문서로 청원이 가능하도록 한 ‘전자청원시스템’ 도입도 촉구했다.





## 의회운영위원회

제373회 정례회

## 2018 회계연도 결산 심사

## 미세먼지 대책 특위구성 및 주요 현안 심사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영주)는 제373회 정례회 회기 중 두 차례 위원회를 열고, 의회사무처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제37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3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또,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대기환경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의결하고 현안들을 논의했다.

먼저, 위원회는 의회사무처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가결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은 징수결정액 1527만4000원 전액 수납됐고,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02억 9916만9000원으로 이중 92억8692만4000원을 지출하고, 6650만원은 이월했으며, 9억4574만5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다.

위원들은 심사에서 의회사무처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사무처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심도 있는 질의 및 응답시간을 가졌다.

특히, 전년대비 예산집행이 많다고 지적하며 ‘2109

회계연도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구하며, 결산 심사를 참고삼아 2020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시 적절한 예산액과 사업을 주문했다.

또,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는 도내 미세먼지 평균농도가 전국최고 수준의 심각한 상태로 관측되는 등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됨에 따라 충청북도의회 차원의 미세먼지 대책 점검과 저감정책을 원활히 추진토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회부했다.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같은법 시행령 56조 및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근거, 위원장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하여 선임일로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위원회는 또, 제37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7월 9일부터 7월 19일까지 11일간 개최해 충청북도도와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의안심사와 당면업무 협의 및 기타 안건들을 처리하기로 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6월 10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제37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을 심사·의결했다.

정책복지위원회

제373회 정례회

2018 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니어클럽 설치 확대·추가예산 확보 등 촉구



위원장  
박상돈 의원



부위원장  
박형웅 의원



심기보 의원



육미선 의원



이상욱 의원



최경천 의원



정책복지위원회는 6월 14일 충청북도보조기기센터를 방문해 시설을 점검·체험하고 보조기기의 발전방향과 장애별 보조기기 도입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박상돈)는 제373회 정례회 기간 중 위원회를 열고 「충청북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충청북도지사 제출한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6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먼저, 육미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조례안」은 도내 정신질환 예방, 조기발견, 치료 등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권리보장 및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이어, 심기보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는 도민의 이해 편의를 돕고자 약어표기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한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또, 최경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행정법규상 담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해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및 일부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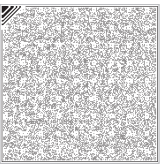
위원회는 또,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에서는 당연직 위원 증원 및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정수를 기존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 개정하려는 사항들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어, 실시한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에서는 외국인환자 유치활성화 지원사업 예산잔액 과다 발생문제를 지적하며 앞으로 중국 외에도 대상 국가를 다변화하여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각 사업별 성인지예산 목표 선정 시 보다 신중을 기해 작성하여 성인지예산제 목적에 맞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과 함께 예산전용 시 구체적인 소요경비 산출기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진 점에 대해 향후 효율적인 예산변경 및 집행이 이뤄지도록 철저한 사전검토를 요구했다.

이어, 시니어클럽 설치 확대를 위해 예산 추가확보 등의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도내 전 지역에 시니어클럽이 조속히 운영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 행정문화위원회

제373회 정례회

# 사회개발비 지원사업 등 효과성 검토 촉구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전원표)는 지난 6월 10일부터 6월 24일까지 열린 제373회 정례회 중 위원회를 개최하여 2018 회계연도 결산안 및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조례안 등 회부안건을 심사하고, 도내 북부권 마을기업을 방문·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원표 위원장은 감사관 결산안 심사에서 도민감사관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원거리에서 참석하는 도민감사관에게 적정한 실비를 지원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여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당부했다.

허창원 부위원장은 감사관 결산안 심사에서 언론보도를 통해 문제가 된 공직자들의 지방세 체납문제에 대한 조사와 향후 계획이 있는지 질의했다.

연철흠 의원은 공보관 결산안 심사에서 전반적인 도정 홍보 성과를 확인하였고, 연례반복적인 예산편성 및 경직된 예산 집행은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자치연수원 결산안 심사에서 연수원 시설관리사업비(석면교체공사)의 명시이월 처리가 적정한지 확인하고,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정상교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 결산안 심사에서 전반

적으로 불용액이 많은 편으로 사업량의 변동이 있었는지 확인하였고, 절감된 예산을 반영한 차년도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미애 의원은 전국소년체전 준비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통신회선과 인터넷 사용료 등이 적절한 산출근거를 통해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불용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과다책정을 지양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행정국 결산안 심사에서 의전행사 업무추진 행사운영비로 예산 전용된 부분이 적정했는지와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지원사업의 질적인 효과성 등을 점검했다.

이옥규 의원은 저소득층 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계획보다 월등한 실적을 보고한 점을 확인하고, 양적인 달성뿐 아니라 수혜대상 만족도 증진 등 실질적인 정책효과가 높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행정국 결산안 심사에서 전기자동차 인프라 구축사업이 2017년에 편성되어 작년까지 집행되지 않은 이유를 확인하고, 충분한 사전검토가 없이 성급한 예산 편성이 이뤄진 것을 개선 요청했다.



위원장  
전원표 의원



부위원장  
허창원 의원



송미애 의원



연철흠 의원



이옥규 의원



정상교 의원



행정문화위원회는 6월 14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회부된 안건들을 심사했다.

## 산업경제위원회

제373회 정례회

# 4차산업 및 태양광산업 등 발전방안 모색



위원장  
박우양 의원



부위원장  
임영은 의원



박문희 의원



이상식 의원



이상정 의원



하유정 의원



산업경제위원회는 6월 17일 보은 대추연구소를 방문하여 대추재배 현황 및 무인방제시설 등을 점검하고 보은 대추가 기능성 식품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을 독려했다.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박우양)는 제373회 정례회 기간 중 소상공인 관련 단체와 간담회를 실시하고 소관부서에 대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상정된 안건들을 심사·의결했다.

또, 보은 대추연구소와 기업체 등을 방문하며 일선 현장의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파악하는 등 활발한 의정 활동을 전개했다.

먼저, 위원회는 6월 10일 소상공인 관련 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자영업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6월 13일 실시한 경제통상국, 농정국, 경제자유구역청, 농업기술원에 대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서는 부서별로 과다한 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업들에 대해 지적했다.

의원들은 또 “정확한 사업예측에 따른 예산편성과 사업 추진 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급적 이월액과 예비비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해달라고”를 당부했다.

6월 17일에는 보은군에 위치한 대추연구소와 한화 보은공장, 중소기업 (주)이킴 등의 기업체를 방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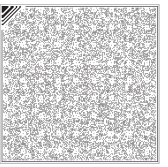
의원들은 대추연구소에서 현황을 보고 받고 시설을 점검한 후 다각적인 식품개발과 기능성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연구·개발을 독려하고, 한화 보은공장과 (주)이킴에서는 기업체와 보은군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보은군기업인협의회와 간담회를 열어 사업장을 운영하며 발생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는 등 기업인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6월 24일에는 하반기 예정인 위원회의 공무국외출장의 내실화를 다지기 위해 관계 공무원, 소관 분야별 전문가, 자문위원 등과 간담회를 갖고 4차산업 및 태양광 관련 충북도 현황, 축산분뇨산업의 추진상황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공무국외출장 시 방문예정 기관들에 대해 충실한 사전 준비의 시간을 가졌다.

위원회는 또,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와의 간담회를 갖고 댐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한 관련법 개정 추진에 따른 농어촌공사의 입장을 듣고 향후 계획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제373회 정례회

## 불용·이월액 줄이고, 집행의 효율성 제고 주문

건설환경소방위원회(위원장 이수완)는 제373회 정례회 기간 중 위원회를 열어 소관부서에 대한 「2019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융합바이오세라믹테크노베이터 건립부지 무상대부 동의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6월 13일 실시한 「2019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에서 연종석 의원은 “금도~비산 국지도건설의 경우 전년도이월액 10억1909만 예산현액 중 56.7%인 5억7779만원만 집행되고 사고이월액 1865만원, 보조금반납액 1억2777만원을 제외한 28.9%인 2억9487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과다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 “2018년도 결산서에 따르면 일반회계의 경우 이월액은 1506억3162만원이고, 그중 균형건설국 이월액이 702억8968만원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도로사업은 특성도 있지만 이월되는 부분을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하며 철저한 예산집행을 촉구했다.

이어, 오영탁 의원은 “사전에 사업내용을 면밀하게 종합 분석하여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지연 대비가 가능한 계속비 예산을 활용하여 불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예산편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위원회는 또, 김기창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융합바이오세라믹테크노베이터 건립부지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했다.

또한, 6월 24일 충북재난안전체험관 건립부지를 방문하여 소방본부로부터 사업개요와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진·출입로 등을 점검한 후 “도심과 접근성이 떨어지고 진입로가 비좁아 이용에 불편이 예상된다”고 지적하며 “청주시와 협의해 진·출입로 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재난안전체험관이 도민들의 효율적인 소방안전교육과 화재예방·재난 초기대응능력 제고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위원장  
이수완 의원



부위원장  
윤남진 의원



김기창 의원



박병진 의원



연종석 의원



오영탁 의원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6월 24일 재난안전체험관 건립부지를 방문해 소방본부로부터 사업개요 및 추진 상황을 보고 받고 현장을 점검했다.

## 교육위원회

제373회 정례회

도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 충북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정 등 현안 심사



교육위원회는 6월 14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충청북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안'과 '충청북도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등을 심사·의결했다.



위원장  
이숙애 의원



부위원장  
서동학 의원



김영주 의원



박성원 의원



이의영 의원



임기중 의원



황규철 의원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숙애)는 제373회 정례회 기간 중 위원회를 열어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을 비롯한 8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먼저, 6월 14일 실시한 제1차 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지역 간 교육격차와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황규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어, 학교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로 학생들의 노동권리의식 함양과 노동인권 존중을 목적으로 이숙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또,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 향상시키기 위해 김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여 원안

대로 가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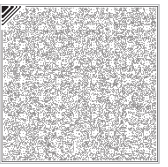
6월 17일 실시한 제2차 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671억7864만3000원(9.9%) 증액된 2조9574억7920만5000원으로, 예산안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과 심사를 통해 총 266억5074만5000원을 삭감해 의결했다.

주요 삭감내역은 사업의 타당성 결여나 사업효과가 의문시되어 검토가 필요한 초·중·고 공기순환기 설치비 265억1000여만원, 청주남중 테니스장 보수공사비 1억2000여만원, 퇴직 교원단체 활동지원비 1000만원 등이다.

위원회는 또,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2년 3월 학교(가칭 동남2유치원)설립 계획안」과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제출된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가결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8 회계연도 결산 심사

## 충북도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안 등 심사·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연종석)는 제373회 정례회 회기 중 세 차례 위원회를 열고 충북도지사와 충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충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6월 18일 실시한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고교 무상교육 시행 등 주요 현안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 반영한 것으로,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671억이 증액된 2조9574억원이다.

집행부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된 심사는 날카로운 질의·응답이 오가며 오후 5시를 넘겨서야 마무리되었다. 계수조정 결과 청주남중테니스장 보수 공사 등 7건의 사업에 대하여 266억5074만원을 삭감했다.

주요 삭감사업을 살펴보면, 청주남중테니스장 보수공사 1억2450만7000원, 퇴직교원단체활동지원 1000만원, 미세먼지와 관련된 공기순환기 초·중·고교 설치사업 265억1623만8000원을 삭감했다.

6월 19일 실시한 제2차 회의에서는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승인했다.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는 세입·세출 결산 규모 세입결산액 3조233억원, 세출결산액 2조6910억원으로 3322억원의 세제잉여금이 발생했으며, 세부내역은 이월액 2068억원, 보조금 잔액 15억원, 순세제잉여금 1238억원 등이다.

6월 20일 실시한 제3차 위원회의에서는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승인했다.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세입결산액 4조8012억원, 세출결산액 4조3539억원으로 4473억원의 세제잉여금이 발생했으며, 세부내역은 이월액 1381억원, 보조금 잔액 21억원, 순세제잉여금 3070억원 등이다.

제11대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제373회 정례회 3차 회의를 끝으로 1년 임기를 마무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18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을 심사·의결했다.

## 제373회 정례회 주요 처리의안

### 충청북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안(대표발의 : 육미선 의원)

#### [제안이유]

- 「정신건강증진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의 이념과 목적을 반영하여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및 정신질환자의 재활·복지·권리보장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충북도 내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한

### 충청북도 행정법규상달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최경천 의원)

#### [제안이유]

- 2018년 10월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여 행정 혼란을 방지하고 자치법규에 대한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함

### 충청북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 허창원 의원)

#### [제안이유]

- 충청북도 및 도 소재 공공기관이 직무수행에 필요한 재화 또는 용역 등을 공공구매를 할 경우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여 사회적 경제기업들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 김기창 의원)

#### [제안이유]

- 조직개편 및 업무이관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 변경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용을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충청북도 고문번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심기보 의원)

#### [제안이유]

- 법제처의 법령 입안·심사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약어표기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여 국민의 이해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 충청북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안 (대표발의 : 이숙애 의원)

#### [제안이유]

- 학교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학생의 올바른 인식과 노동 권리의식을 높여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노동인권과 관련한 문제해결 능력을 갖도록 함으로써 노동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함

### 충청북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 허창원 의원)

#### [제안이유]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인 충청북도가 국가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대행기관으로서 운영 및 사무처리에 관한 제도를 명시하고 관련 지원 체계의 제도화를 목적으로 함

###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전원표 의원)

####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2018.12.4. 일부개정)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에 따른 상위 법령 미반영 사항 등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 충청북도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황규철 의원)

#### [제안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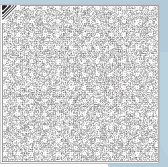
- 충청북도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간 교육격차와 불균형을 개선하고 공교육을 내실화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 김영주 의원)

#### [제안이유]

- 충청북도교육감의 민간위탁 사무 중 의회의 동의 및 보고 절차에 관한 사항을 수정·보완하여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 확대와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함





### 충청북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의 관한 조례안(제출 : 충청북도지사)

#### [제안이유]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5526호, 2018.3.27. 공포, 2019.3.28.시행)됨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제출 : 충청북도지사)

#### [제안이유]

- 2018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 집행결과인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에 대한승인과 기금·채권·채무·공유재산·물품 결산 및 지역통합 재정통계보고서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함

### 융합바이오세라믹테크노베이터 건립부지 무상대부 동의안

(제출 : 충청북도지사)

####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대부료의 감면)의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융합바이오세라믹테크노베이터 건립 부지를 건립·운영 기관인 「한국세라믹기술원」에 무상대부를 허가하기 위하여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출 : 충청북도지사)

#### [제안이유]

- 위원회의 효율적인 구성·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제출 : 충청북도지사)

#### [제안이유]

- 2018회계연도 세출예산 중 예비비 지출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

###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제출 : 충청북도교육감)

#### [제안이유]

-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심의를 받고자 함

###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출 : 충청북도교육감)

#### [제안이유]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충청북도의회의 심의를 받고자 함

### 충청북도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 개발 특수목적 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제출 : 충청북도지사)

#### [제안이유]

- 사업 중단 발표 및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충주에코폴리스개발(주) 청산종료 등기완료와 행안부의 출자기관 지정해제 고시('19.1.31.)가 게재됨에 따라 기능을 상실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 : 충청북도지사)

#### [제안이유]

- 불안정한 대·내외적 통상환경에 종합적·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출담당부서를 일원화하고자 단행된 도 조직개편('19. 1. 10)에 따른 조례를 일부개정하려 함 (조직개편 : 농식품유통과 ⇨ 국제통상과)

###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 충청북도지사)

#### [제안이유]

- 충북만의 특색있는 웰니스관광 자원의 발굴 및 육성과 충북 관광산업(음식,관광,숙박등)의 연계를 통해 웰니스관광 목적지로서 인지도 제고 및 관광객 유치에 필요함에 따라 도 차원의 웰니스관광거점 육성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적인 기능은 전문성과 능률성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 : 충청북도지사)

#### [제안이유]

- 사무처리 효율화를 위한 위임권한의 변경, 근거 법조항 개정, 위임사무명 개정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변동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출 : 충청북도교육감)

#### [제안이유]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조에 의해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에 따라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충청북도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 2022년 3월 학교(가칭 동남2유치원) 설립 계획안

(제출 : 충청북도교육감)

#### [제안이유]

- 개발지구 공동주택 입주유아 배치 등 유아·학부모 교육여건 개선 위한 유치원 신설 필요

###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제출 : 충청북도교육감)

#### [제안이유]

-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심의·의결을 받고자 함



허 창 원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 청남대 운영 및 관광 활성화 대책 마련 촉구

**Q** 한국관광공사에서 발표한 관광지수가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충북이 17위이고 세종시가 16위입니다. 관광분야에서 이러한 지수가 나온 것에 대해 지사님께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관광분야 관해서 충북의 경쟁력이 타 시·도에 비해 별로 좋지 않은 것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광문제는 충북이 타 시·도보다 월등한 경쟁력을 갖기에는 여건 관계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Q** 최근 3년간 정채된 입장객 수와 전년에 비해 많이 투자되는 예산액을 보면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A** 청남대 방문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무엇일까? 고민하여 대통령을 테마로 한 관광지로 개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으로 중점 투자·유치하여 40만명 정도로 떨어졌던 관광객을 최근 82만명~83만명까지 올려 나름대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Q** 한 달여 전에 접한 충북연구원의 2018년도 용역보고서에 청남대 개선방안에 대한 제1과제가 국가정원 지정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국가정원 1호는 순천만입니다. 그 다음으로 국가정원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선두주자로 앞서 가는 곳이 울산 광역

시의 태화강입니다.

그러면 국가정원으로 지정됐을 때 지원되는 정부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A** 연간 한 40억 정도 운영비로 지원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Q** 충북연구원 용역보고서와 얼마 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울산 태화강의 경우 700억 원 규모의 정원 조성비와 한 해 50억 원 가량의 관리비를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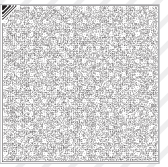
우리 청남대 국가정원 지정요건에 면적이 30ha, 30만㎡, 그리고 정원의 면적은 그중의 40%를 차지해야 되는데, 충북연구원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청남대가 대부분의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의견을 듣다 보면 청남대를 국가정원으로 진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떠한 일들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A** 실무적으로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청남대를 국가정원으로 지정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보전산지가 91%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보전산지가 91%가 되는 땅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할 경우 그것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산림청에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굳이 국가정원을 지정한다면 청남대 외에 충북의 다른 지역을 국가정원으로 선정해 추진하는 방안이 있는데, 현재 음성군에서 그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 보전산지 「산지관리법」 12조에 보시면 산지보존 행위에서 수목원, 산림생태원, 자연휴양림, 수목장림이 다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전산지 산지전용을 애 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생화, 관상수의 재배까지도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12조에 다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저에게 수도법 7조를 가지고 안 된다고 말 씀하시는데, 이 수도법 7조를 보면 오히려 토지의 형 질변경까지도 지사님의 권한으로 나와 있습니다.

**A**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법적인 해석 문제는 이 자리에 서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현재 실무적으로 파악한 거 에 의하면 「산지관리법」 “12조(보전산지에서의 행위 제한)” 조항에 정원개념이 현재 들어가 있지 않아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별도로 검토해 의원님께 보고 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Q** 지방정원에 필요한 면적이 10만㎡입니다. 그것의 60%만 있으면 지방정원이 등록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골프장 면적만 해도 지방정원으로 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에버랜드 보고서 17페이지에 보면 산림분포 130ha 중에 시설지 즉 건물, 도로, 조경수 등으로 되 어 있는 면적만 30ha입니다.

**A** 이미 청남대는 국가정원은 아니지만 국가정원에 못 지않은 나름대로의 조경이나 여러 가지가 잘 갖춰져 있다고 생 각합니다.

그래서 국가정원 지정 이 아니더라도 청남대 는 독자적으로 지금 나 름대로 관광지로써 잘나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국가정원 문제를 하나 검토한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는 청남대보다는 다른 지역을 찾아 국가정원을 별도 로 조성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Q** 앞서 운영수익 부분에서 보셨던 것처럼 매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1년 임대료가 37만 4,000원입니다. 우리 청남대에 들어오는 1년 관광객은 80만 명이 넘습니다.

저희들도 수차례 행정문화위원회에서 가보았지만 그 매점에서 소화를 못합니다. 매점이 연간 37만 4,000 원에 운영되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A** 매점에서 소화를 못 시키는 것은 당연합니다.

현재 청남대가 수도법 등 여러 가지 규제에 묶여 있 어 호텔, 음식점, 숙박시설을 전혀 할 수 없기 때문 에 간이매점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여 러 가지 규제가 강하기 때문에 현재는 숙박과 관련 된 시설을 일체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Q** 지금 어차피 37만4000원에 문의면번영회에서 운 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의면 상가번영회에서 그렇게 운영할 것이면 마 을기업이든 사회적기업이든 제대로 만들어 그분들 이 도시락을 판매해도 가능하고, 더 나아가 충북 청년들의 푸드트럭 부분들도 청남대에서 운영이 돼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이야기입니다.

**A** 청남대 운영을 들어가는 예산대비 입장료 수입으로 보지 마시

고 문의면 지역의 관광수 입과 우리 도가 투자 하는 투자금액을 합 해 비교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청남대에 오는 관광 객들이 연간 390억 원 정도를 문의면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분석됩니다.

**답변** 이시종 도지사

**질문** 허창원 의원



## 남북교류협력사업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이 상 정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머지않은 시기에 북미간의 핵협상이 타결되고 남북 간에 전면적인 평화·교류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전망을 모두 하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교류협력 사업은 민족적인 화해와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일이기도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어려운 충북경제를 풀 수 있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담부서를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시급히 남북교류협력팀과 과 체제를 준비해야 합니다. 충분한 인력확보와 전문인력을 키워야 합니다.

둘째, 현재 15명의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분야별로 대폭 확대하여 산업·농업·관광·의약품·대외협력분야 등으로 나누어 민간전문가 참여 대폭 확대와 전문역량을 키워야하며 전문연구기관 설립도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관련 조례인 충북남북교류협력 조례를 대폭 개정하여 법적기반을 마련하고, 교육청과 시·군에서도 조례를 제정하게 하여 도차원의 종합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이 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남북교류협력기금도 지금보다는 더 많이 늘려야 할 것입니다.

## 문화소외지역에 대한 관심과 배려 촉구



전 원 표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문화복지는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정신적·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한 것입니다.

문화복지정책은 일반 국민을 위한 문화향수기회 확대와 취약계층을 위한 문화복지 강화 정책으로 이원화되었으며, 문화취약계층을 위한 문화정책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간 충북문화재단에서 실시한 공모사업 통계를 보면 문화소외지역이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 공모사업에서 2019년 청주시는 건수대비 62.0%, 금액대비 52.5%가 배정된 반면, 북부권인 제천시와 단양군은 건수대비 5.4%, 금액대비 4.9%를 배정받았고, 2017년과 2018년의 선정결과도 대동소이 합니다.

이시종 지사께서는 민선6기와 민선7기에 문화예산 2% 달성을 기반 구축을 공약하신 바 있습니다. 충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약으로 내세운 '문화예산 2% 달성기반 구축'을 꼭 실현해 주십시오.

그리고, 북부권과 남부권 등 문화소외지역에 대해 더 큰 관심을 보여주시고 이들 문화소외지역 도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향토문화 창달에 기여할 충청북도지 발간해야



임 영 은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충청북도는 국가 균형발전의 새로운 어젠다인 강호축을 제안하고 글로벌 경기침체와 수도권 규제완화 속에서도 8조5000억원이나 되는 대규모 투자 유치로 일등경제 충북실현에 청신호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충북도는 외형적 성장 못지않게 내적인 부분도 챙겨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적인 부분을 채우는 첫걸음을 「충청북도지」 편찬 사업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지역 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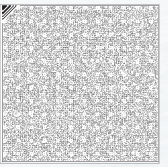
를 깊이 이해하고 향토문화 창달에 기여하면서 후손에게 귀중한 정신적 문화유산으로 물려줄 도지를 새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단순히 1회성 도지 발간을 지양하고 정치·경제·문화·예술, 여성, 유·무형의 문화재 등 영역별로 정리하여 연차적 계획 하에 발간해야 합니다.

더불어 4차산업 혁명과 AI 시대에 발맞춰 도민의 정보 향유, 시의성을 갖춘 상시적 웹 콘텐츠와 결과물을 온라인 서비스가 가능한 도지를 만들어 정보화 시대에 동참해야 합니다.

도지는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변화하는 앞으로 10년 단위로 간행해야 합니다. 도지 편찬은 향토역사의 올바른 이해와 자긍심·애향심을 고취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 에어로폴리스 2지구 조성사업 이주민 특별지원대책 주문



이 상 욱 의원  
(정책복지위원회)

충북도와 청주시는 내수읍 일원에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충북도의 경제수준을 성장시킬 교두보적인 사업이며, 강호축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역량을 높여 세계 속의 충북을 실현시킬 수 있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사업구역에 편입된 주민들에게는 충분치 못한 보상금액과 적정한 지원방안의 부재로 이주를 통한 재정착과 생활안정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조성 중인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는 청주국제공항 인근으로 민간항공기와 제17전투비행장의 전투기 소음으로 주민들이 큰 피해를 겪고 있는 곳입니다.

또한, 주민들은 1976년 제17전투비행장 건설로 첫 번째 이주, 1991년 청주국제공항건설로 두 번째 이주, 이번 에어로폴리스 2지구 조성사업으로 세 번째 이주의 아픔을 겪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공익을 위해 강제로 이주해야 하는 주민들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당연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에어로폴리스 조성으로 생활터전을 잃고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주민들을 위해 현실적인 이주대책 수립과 보상 현실화 등의 특별 대책마련을 촉구합니다.

## 혁신도시 시즌2와 세무지서 신설 충북도가 앞장서야



이 수 완 의원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충북혁신도시시는 2013년도 한국가스안전공사사를 시작으로 2018년도까지 한국과학기술평가를 제외한 총 10개의 공공기관을 이전 완료하고, 지난해 말에는 주민등록상 인구수가 2만명을 돌파하는 등 충북 중부권 거점도시로서 비약적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진천군·음성군 의회는 충북혁신도시에 세무지서를 신설해 달라고 청와대·국회·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건의한 바 있으며, 양 군이 세무지서를 공

동유치하기 위한 협약식도 가졌습니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지난 4월 1일 세무지서 신설의 필요성과 당위성 등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고 조직개편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상황으로, 최종 승인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음성군이 주축이 되어 세무지서 신설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이제 가시권에 들어오게 된 사실을 충분히 환영하지만 앞으로가 더욱 중요합니다.

충북혁신도시시는 물론 진천군, 음성군 더 나아가 충북경제 발전에 밑거름이 되는 기초가 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의 국세청 조직개편안이 반드시 승인되도록 충청북도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소통하는 의정  
공감받는 의회

163만 도민과의 행복한 동행

민의동행 民議同行

충청북도의의회  
<http://council.chungbuk.kr>





정책복지위원회는 6월 14일 청주시 흥덕구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관련 시설을 점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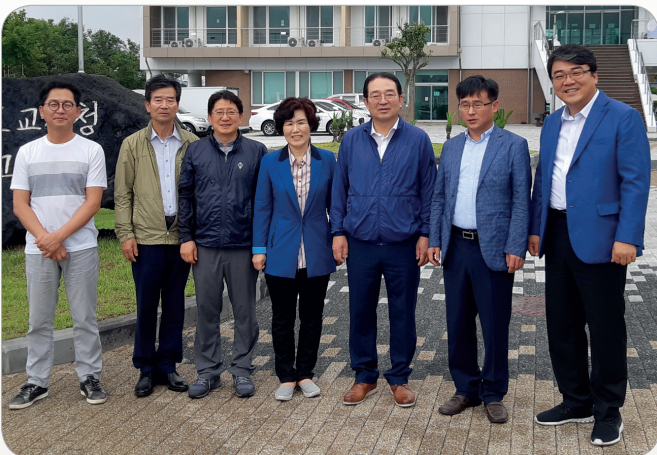
행정문화위원회는 6월 17일 마을기업인 제천 솔로시티 수산협동조합과 단양 영춘교을 농산물유통센터를 방문해 현황을 듣고 제품들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산업경제위원회는 6월 17일 보은군 기업인협의회와 간담회를 열어 기업인들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6월 13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융합바이오세라믹테크노베이터 건립부지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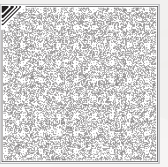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6월 26일 충청북도학생해양교육원 제주분원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듣고 시설을 점검한 후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산업경제위원회는 6월 10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소상공인 관련 단체와의 간담회를 갖고 일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 및 지원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충북도의회 장선배 의장과 도의원들이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괴산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된 제58회 도민체육대회 개최식에 참석해 축하와 함께 각 지역별로 선전을 기원했다.



충북도의회 장선배 의장과 도의원들이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함께 5월 23일 '제8회 대한민국 도시농업박람회'에 참석해 전시품들을 둘러보고 있다.



충북도의회 장선배 의장과 도의원들이 5월 29일 '을지태극연습' 중인 충무시설을 방문해 현황을 듣고 위문품을 전달하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충북도의회는 6월 6일 현충일을 맞아 청주시 사직동에 위치한 충훈탑에서 실시된 '추모식'에 참석해 현화-묵념하며 조국을 위해 헌신한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뜻을 기렸다.



충북도의회 장선배 의장과 도의원들은 6월 27일 세종시에서 충청권 광역의회가 공동 개최한 '충청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토론회'에 참석해 지방자치법 조기개정을 촉구했다.



최 경 천 의원  
(정책복지위원회)

## 10점 만점에 10점?

도의회이 된 지 1년이 된 지금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생각해 본다.

‘나 잘하고 있나?’

부단히 노력한다고 했지만 도의원으로서의 활동이 생각처럼 그리 쉽거나 만만하지 않았다. 의회에 오기 전 노조일은 근 27년을 해왔기 때문에 전문가라고 자부하고 또 자신도 있었지만 의회는 전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다.

특히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도민들과 NGO 단체 그리고 언론에서 많은 것을 요구하고 그것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불만을 표시할 때는 답답하기까지 했다.

노동관련 일을 할 때 강의를 꽤 다녔다. 그때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열정과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가라, 일에 대해 전문가는 최소 10년, 장인(匠人)과 지존(至尊)이 되려면 최소 15년은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도의회 역시 그 범주에서 크게 다르지 않았다. 초선의원인 나 보다는 재선 또는 다선, 그리고 시의회에서 갖고왔던 경험 있는 의원들의 업무처리 능력은 탁월했다.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배 의원들의 말씀은 ‘아무리 그래도 도민들은 늘 10점 만점에 10점을 요구하는 것 같다’라고 말을 한다.

‘10점 만점에 10점?’

나는 노조생활을 오랫동안 해왔지만 ‘10점 만점에 10점’이라는 생각을 해 본적이 없다. 그만큼 ‘10점 만점’이 쉽지가 않다는 것이다.

아마도 도민들이나 NGO단체 그리고 언론들 역

시 우리 의원들에게 그러한 만점을 요구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다만 ‘10점 만점’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또 노력해 달라는 이야기 일 것이다. 하지만 의원들에게 숙명과도 같은 질책(叱責)과 채근(採根)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격려’도 필요하다. 의원들도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지난 1년의 시간들이 나에게서는 ‘새내기’같은 시간들이었다. 그러한 새내기가 의회에 와보니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았다. 각자의 생각이 다른 32명의 의원들이 있고, 또 나름대로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는 집행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정책 만들기 쉽지가 않고 잘 굴러가지 않을 때도 있다. 그런 의원들과 집행부의 마음을 모으기 위해 토론하고 설득하여 이해시키는 책임이 나 뿐 아니라 모든 의원 각자에게 있다. 때문에 조금의 기다림도 필요하다.

아무튼 우리에게 목표는 ‘10점 만점에 10점’이다. 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다가 지칠 수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목표는 목표이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시작은 했으니 일단 5점은 넘었다고 해도 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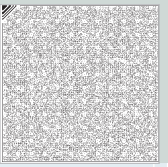
쉽지는 않겠지만 감히 발칙한(?) 꿈을 꾸어본다.

제 11대 충청북도 의회가 3년 후 임기를 마칠 때, 의원들 아닌 도민들로부터,

‘충청북도 제11대 의회 10점 만점에 10점!’

이런 소리를 듣고 싶다. 아~ 생각만 해도 좋다 ~^^ 꿈이라도 좋다~





## 미래는 아픈 기억으로 성장한다



정 상 교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한국·중국·일본 세 나라는 동북아시아에 있으면서 문화적 공통점이 많다. 그 중의 하나가 바둑의 인기가 높다는 것이다.

스포츠계에서는 찬반 논란이 있지만 격렬한 운동 경기 못지않게 두뇌를 움직이는 점을 감안하여 바둑을 아시안게임의 한 종목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바둑은 스포츠나 게임 등 다른 경기에서는 볼 수 없는 특징이 하나 있다. 야구, 축구, 육상경기 등은 승패가 결정된 후 승패에 따라 환호하거나 좌절하며 경기장을 떠난다.

그러나 바둑은 승패가 결정된 후 대국장을 떠나지 않고 바로 대국에 대한 복기(復棋)를 한다.

승자는 ‘내가 이 부분에서 이렇게 해서 이겼다’라는 자부심이 있겠지만 패자는 승자 앞에서 패착의 과정을 돌아보는 일이 무척 아플 것이다.

그럼에도 승자와 패자가 대국 후 복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나라에서 바둑 천재로 통했던 이창호 기사는 “승리한 대국의 복기는 이기는 습관을 만들어 주고, 패배한 대국의 복기는 이기는 준비를 만들어 준다”며 복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람이 살다보면 좋은 일만 있을 수 없다. 연인과 헤어지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하는 경우도 있다. 또는 시험에서 낙방, 사업실패, 질병 등 겪고 싶지 않은 일도 생긴다.

우리는 지나간 실패를 치욕으로 여기며 다시 기억하는 것을 싫어한다. 그러나 앞으로 살아 갈 길이 꽃길만은 아닐 것이다. 과거의 실패를 되돌아보고 이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그래야 바둑처럼 인생에서도 실패가 성공의 밑

거름이 될 수 있다. 이것은 개인의 인생사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역사도 마찬가지다.

우리 행정문화위원회는 지난 5월, 경복궁, 덕수궁, 탑골공원을 거쳐 식민지역사박물관과 김구선생의 묘소가 있는 효창원까지 독립운동의 흔적을 찾았다.

서대문형무소나 식민지역사박물관을 둘러보는 내내 마음이 편치 않았다.

너무나 무기력하게 나라를 잃어버리고 고통 받았던 시간이라 치욕스런 역사를 돌아보는 것이 힘들었다.

가을에는 나라를 잃고 일제에 쫓겨 상해에서 충칭까지 4천 킬로미터를 떠돌았던 임시정부 요인들의 발자취를 돌아보기 위해 중국으로 국외공무출장을 떠날 예정이다.

다른 지방의회가 선진국으로 출장을 가는 흐름 속에서 중국 남부 임정요인들의 항일운동 흔적을 탐방하는 것이 과거지향적인 일이 아니냐고 의아해 하는 시선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위원회가 역사의 아픈 곳을 찾아가는 이유는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바둑을 복기하듯 지난날의 아픔을 바탕으로 미래를 준비하고자 함이다.

일제 강점기가 한스럽고 부끄러운 역사의 시간이었지만 두 눈을 부릅뜨고 복기해서 후손들에게는 이런 아픔을 다시는 겪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3·1운동과 임정수립 100주년을 맞은 2019년을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의 자세라고 생각한다.

# “충북도의회는 항상 열려있습니다”

## 청원안내

### ■ 청원서 제출방법

- 도의회에 청원을 하려면 도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 제출
- 청원서에는 청원인 주소·성명(가명), 서명(날인)
- 청원서에는 청원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음
-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청원 소개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 청원서 문의

- 의사담당관실 : 043)220-5151~5155

## 민원안내

### ■ 진정서 등 제출

- 진정서는 청원서 외에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인터넷 민원 등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함
- 진정서는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진정내용을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

### ■ 제출방법

- 우 편 : 2851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의사담당관실
- 인터넷 : <http://assem.cb21.net>의 「진정/민원」에 글쓰기
- 팩 스 : 043)220-5159

## 방청안내

### ■ 방청 신청

- 의회사무처(의사담당관실)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신청

### ■ 방청권 교부

- 의회사무처(의사담당관실)에서 방청권 교부
- 의사담당관실 : ☎ 043)220-5155



**충청북도의회**

<http://council.chungbuk.kr>

- 충청북도의회 인터넷방송 : <http://assembtv.cb21.net/>
- 트 위 터 : [https://twitter.com/chungbuk\\_assem](https://twitter.com/chungbuk_assem)
- 페이스북 : <http://www.facebook.com/cbassembly>

